삼성전자, 美소비자 만족도 PC부문 공동 1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03297?sid=101

갤럭시 탭 라인업 선전…애플 20년 독주 저지  
  
  
  
[서울=뉴시스]21일 미국 소비자만족지수협회(ACSI)의 '2023년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PC 부문에서 83점을 획득해, 애플과 함께 공동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전년 2위(81점)에서 올해 한 계단 도약했다. (사진= ACSI 홈페이지 캡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삼성전자가 애플과 함께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만족도가 높은 PC(데스크탑·노트북·태블릿) 브랜드로 선정됐다.21일 미국 소비자만족지수협회(ACSI)의 '2023년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PC 부문에서 83점을 획득해, 애플과 함께 공동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전년 2위(81점)에서 올해 한 계단 도약했다. ACSI에 의하면 삼성전자 '갤럭시 탭' 라인업의 미국 소비자 만족도가 전년보다 6% 향상되며 올해 순위 상승에 기여했다. 또 삼성전자가 올해 2월 출시한 노트북 '갤럭시 북3 시리즈'도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삼성전자의 약진으로 애플은 2003년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PC부문에서 단독 1위 자리를 내려놨다. 이어 글로벌 PC 제조사 델과 HP가 81점으로 공동 2위에 올랐다. 또 레노버, 에이수스, 아마존, 에이서 등은 78점을 기록했다.ACSI는 올해로 26주년을 맞이한 미국 최고 권위의 시장조사업체다. 연간 약 50만명의 소비자를 직접 인터뷰해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피하지 못한 ‘핵폭탄 갑질’…美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57735?sid=101

불공정 수단 동원 불리한 계약 강제부품 선적 중단 등 각종 불공정 수단을 동원해 삼성전자에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경쟁당국으로부터 19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브로드컴은 구매주문승인 중단 등의 조치가 ‘핵폭탄’에 해당할 정도로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활용해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LTA 체결을 강요했고, 삼성전자는 결국 비싼 가격에 부품을 구매하는 등 금전적 손해를 떠안아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가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품 공급에 관한 LTA 체결을 강제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2018년 이전까지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무선통신 부품인 RFFE 부품과 스마트기기를 다른 기기 등에 연결하게 하는 커넥티비티 부품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세계 1위 사업자였다. 이때까지 삼성전자는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고성능 부품의 대부분을 브로드컴에 의존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하지만 2018년부터 RFFE 부품을 결합한 일부 부품(OMH PAMiD)에서 경쟁이 시작되고, 삼성전자가 2019년 경쟁사업자로부터 이 부품을 공급받으면서 브로드컴의 압박이 시작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부품 공급 다원화 전략에 따라 갤럭시 S20에 경쟁사업자인 코보의 OMH PAMiD를 채택했다. 브로드컴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매우 실망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삼성전자에 커넥티비티 부품을 100%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RFFE 계약까지 독점하기 위해 LTA 체결 전략을 수립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브로드컴의 LTA 체결 압박은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이뤄졌다. 브로드컴은 2020년 2월 첫 번째 협상에서 삼성전자에 스마트기기 부품의 공급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한 뒤 협상 이후에는 구매 주문을 받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구매주문승인 중단이 지속돼 부담이 커지자 커넥티비티 부품에 대한 LTA 체결에 동의하면서 일시적으로 구매주문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브로드컴은 이를 거부하고 LTA에 RFFE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자 브로드컴은 2020년 3월부터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모든 부품의 선적을 중단하고, RFFE와 커넥티비티 부품 생산도 중단했다. 이후 브로드컴은 RFFE 부품 100% 탑재 또는 연간 8억 달러 구매를 요구했고, 삼성전자는 압박에 못 이겨 브로드컴으로부터 3년간 연간 7억6000만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는 LTA에 서명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뉴시스 브로드컴은 선적 중단 등의 조치가 삼성전자에 ‘폭탄투하’, ‘핵폭탄’에 해당할 정도로 기업윤리에 반하는 협박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가진 카드가 없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몰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LTA 체결로 당초 경쟁사의 부품을 탑재하기로 결정됐던 갤럭시 S21 부품이 브로드컴으로 변경되고, 삼성전자가 LTA 이행을 위해 수요보다 더 많은 양의 부품(2억4200만달러)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브로드컴 부품 가격이 경쟁사업자보다 높았던 탓에 삼성전자가 최소 약 1억60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LTA 내용 자체가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했다”면서 “삼성전자는 3년간 연간 7억6000만달러의 최소 구매의무 및 차액 배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수량할인 등 가격적 측면의 혜택이나 반대급부가 일체 없었다”고 지적했다. 브로드컴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계약이 자발적으로 체결된 상호 호혜적 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가 190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판단을 내리면서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의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브로드컴은 과징금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자 역시 브로드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LTA 강요로 추가 비용 등 3억2630만달러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삼성전자 직원이 밤낮없이 '고물상' 가는 이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41405?sid=101

/사진=삼성전자 뉴스룸 캡처삼성전자 직원이 매일 폐기물처리장에 가는 이유는 뭘까. 이 직원이 찾은 '쓰레기'는 재활용 소재로 다시 태어나 삼성전자 제품으로 환생한다.삼성전자가 21일 삼성전자 공식 유튜브에서 연재 중인 '꿈꾸삼'(꿈꾸는 삼성) 시리즈에 순환경제연구소가 하는 일을 소개했다. 삼성전자 순환경제연구소의 탄생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쓰는 거대 제조기업, 삼성전자가 '신환경경영전략'을 발표하면서 함께 만들어졌다. 재활용 소재 개발과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신설했다. 삼성전자는 2050년 탄소 중립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경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했다. 순환경제는 말 그대로 더이상 광물을 채굴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순환경제연구소는 삼성전자 제품의 생산, 소비자 사용,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이용해 재활용 기술을 연구한다. 매일같이 '고물상'을 찾는 이유도 이것이다. 양경모 순환경제연구소 랩장은 "우리의 일은 쓰레기장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쓰레기나 폐기물이란 표현보다는 잠재적인 자원이라는 표현이 맞겠다"고 말했다. 1년만에 이룬 성과도 있다. 순환경제연구소는 삼성전자 제품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을 재활용해서 만든 스티로폼 업사이클링 소재 r-ABS(recycled-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를 연구했다. r-ABS을 사용한 패널은 가전제품, 바닥재에도 쓰인다. 폐배터리 재활용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폐배터리에는 수많은 광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스마트폰 배터리는 코발트를 사용한다. 코발트는 희유금속으로 희소성과 가치가 높다. 양 랩장은 "폐배터리로부터 코발트를 추출해 다시 배터리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순환경제연구소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양 랩장은 처음 연구소로 넘어왔을 때를 떠올리며 "처음엔 넓은 바다 한 가운데에 둥둥 떠 있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순환경제연구소의 궁극적 목표는 삼성전자에서 쓰는 모든 물질을 재활용 소재로 대체하는 것이다. 재활용이 원활하도록 삼성전자 제품 구조를 바꾸고 재질을 단순화하는 일도 해나가고 있다. 양 랩장은 "내 꿈은 고물상을 보물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어떤 폐기물이라도 잘 선별되고 적절한 기술이 있으면 좋은 자원으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하락에 애타는 개미들…골드만 "9만3000원 갑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94740?sid=101

사진=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상승세를 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미끄러지고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재차 부각되며 투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목표주가를 대폭 높이고 있다. ◆‘6만전자’ 돌아간 삼성전자21일 삼성전자는 1.01% 내린 6만8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1.27% 내린 11만65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이달 7만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6만전자’로 돌아갔다. SK하이닉스도 이번 주 5% 하락하며 한 달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기관 투자가의 폭탄 매도가 주가를 끌어내렸다. 최근 4거래일 동안 기관은 삼성전자를 5069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이 기간 외국인 투자자는 516억원을 순매수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최근 4거래일 1604억원을 팔아치우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이 기간 기관은 55억원을 순매도했다.업황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 미국 금리 상승 등이 얽히며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이다. 김태홍 그로쓰힐자산운용 대표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오르려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데, 미국 금리가 급등하면서 투자금 유입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전날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연 5.19%까지 올랐다. 김 대표는 “미국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외국인 입장에서 신흥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목표가 21만원 등장외국계 기관들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AI 관련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급성장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골드만삭스는 HBM 시장이 연평균 64% 속도로 성장해 2025년 100억달러(13조38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전날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 목표가를 기존 17만원에서 21만원으로 높이고 ‘비중확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종가 대비 상승 여력은 80%에 달한다. 국내 증권사(평균 14만원)는 물론 해외 다른 IB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 이날 골드만삭스도 SK하이닉스 목표가를 16만원으로 제시하고 ‘매수’ 의견을 밝혔다. 지난 7월 말 목표가는 15만5000원이다.IB들은 HBM 경쟁력을 근거로 들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대 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HBM이 SK하이닉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5%에 불과하지만 2025년에는 16%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 목표가도 9만3000원으로 높이고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7월 말 목표가는 8만8000원이었다. 삼성전자가 HBM 분야 후발주자지만 2025년께 SK하이닉스를 따라잡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에서 HBM을 턴키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삼성전자”라고 언급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주가 회복의 단기 변수는 AI 이외 분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두 회사 반도체 매출에서 스마트폰, PC 등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특징주]삼성전자, 1% 미만 하락…6.9만원 '아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79942?sid=101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장중 1% 미만 하락하면서 6만9000원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300원(0.43%) 하락한 6만9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18일(7만200원) 이후 3거래일째 6만9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간밤 미 증시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Fed)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53%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4% 하락했다. 애플은 아이폰15 사전 구매 수요가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일부 투자회사의 발표로 2% 하락했다. 인텔은 전일에 이어 데이터센터 수요 부진으로 4.54% 급락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데이터센터 관련 대형 기술주의 부진 등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으로 이어져 국내 증시에 부담”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2나노 파운드리 각축전…삼성전자도 '속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03875?sid=101

인텔, 1.8나노 웨이퍼 깜짝 공개…선전포고초미세 공정 '주도권' 확보 위한 경쟁 가속화삼성전자 2025년 2나노 양산 예고…전력질주  
  
  
  
[서울=뉴시스]패트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9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행사인 '인텔 이노베이션(Intel Innovation)'에서 차세대 파운드리 공정을 적용한 '1.8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웨이퍼(반도체 원판)를 들고 있다. (사진=인텔 홈페이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인텔이 TSMC, 삼성전자가 양분하고 있는 초미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진입에 속도를 붙이며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인텔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행사인 '인텔 이노베이션(Intel Innovation)'에서 차세대 파운드리 공정을 적용한 '1.8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웨이퍼(반도체 원판)를 공개했다. 1.8나노 공정은 현재 삼성전자와 TSMC가 지난해부터 양산 중인 최선단 3나노 공정보다 2세대가량 앞선 기술로, 현재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분야다. 인텔이 지난 2021년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을 선언하며 밝힌 5가지 공정 개발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다.패트 겔싱어 인텔 CEO는 "내년 1분기에 (1.8나노) 반도체 설계를 공정으로 보낼 예정"이며 양산 계획이 순조롭거나 계획 대비 앞서 있다고 밝혔다.인텔의 이날 발표는 TSMC와 삼성전자를 향한 '선전포고'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TSMC와 삼성전자는 2025년부터 2나노 반도체를 양산할 예정이다. 인텔은 선두 업체보다 먼저 초미세 공정 개발에 성공하며, 고객 확보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게 된다.달라진 인텔, 내년에는 업계 2위 도약 포부인텔은 초미세공정을 앞세워 내년에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업계 2위로 도약한다는 포부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으로, 올해 2분기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기준 TSMC(56.4%), 삼성전자(11.7%)와 큰 격차다.   
  
  
  
하지만 인텔은 내년부터 회계 기준을 변경해, 자사 제품 생산량도 파운드리 실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면 파운드리 부문의 매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산술적으로는 삼성전자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업계에서는 인텔의 선두권 도약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인텔이 '마의 벽'으로 여겨지던 10나노대 진입 문턱에서 고전하던 2021년과는 양상이 달라진 것이다.초미세 공정 수요 부진, 장비 확보 등은 변수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이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초미세 반도체 공정은 높은 기술 난도와 생산 단가로 인해 수요가 적고, 소비 침체로 공정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도 2나노 양산 일정을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또 2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차세대 EUV(극자외선) 노광장비인 하이NA EUV를 인텔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이 생산하는 이 장비는 공급망 차질 등 영향으로 출고 지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TSMC와 삼성전자 모두 2나노 이하 설비투자에 공을 들이고 있어 장비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27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에서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사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2023.06.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추격 받는 삼성전자, 초미세 공정 가속화 전망인텔이 선전포고에 나선 만큼 삼성전자도 첨단 반도체 공정 구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올해 개최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에서, 오는 2025년 2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나노 공정은 삼성전자의 TSMC 추격에 있어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했지만, 대형 고객사 확보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계현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장은 올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강연에서 전체 파운드리 경쟁력이 TSMC가 삼성전자 대비 1~2년 앞서 있다고 평가했지만 "2나노로 들어오면 앞설 수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어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업계 선두 도약을 노리고 있다.또 전세계 반도체 설계자산(IP) 기업과 손잡고 고객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파운드리 분야 협력을 모색 중이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1위 수성 ‘비밀병기’ 꺼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39807?sid=105

2년 만에 ‘보급형 프리미엄’ S23 FE 출시 예정  
  
  
  
삼성전자가 2년 만에 ‘보급형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FE를 내놓는다. 12년 연속 스마트폰 판매량 1위 자리를 수성할 ‘비밀병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갤럭시 S23 FE를 일부 국가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갤럭시 탭S9 FE, 갤럭시 버즈 FE 등의 갤럭시 생태계 제품도 함께 출격한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갤럭시 S21 FE를 마지막으로 FE 시리즈를 더 내놓지 않았다. S21 FE 판매량이 기대에 못미친 게 이유로 꼽힌다.삼성전자가 1년 10개월 만에 FE를 부활시키는 건 시장 상황 변화와 그에 따른 라인업 대응 전략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올해 보급형 라인업인 갤럭시 A 시리즈 중 최상위 모델인 A74를 출시하지 않았다. 그 자리를 S23 FE로 대체한다는 것이다.여기에다 갈수록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쏠리는 시장 흐름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에서도 ‘초프리미엄폰’이 더 잘팔리는 추세를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2020년 아이폰12 출시 때 첫 분기에 아이폰12와 아이폰12 프로의 판매 비중은 56대 44였다. 일반 모델이 많이 팔린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아이폰14와 아이폰14 프로의 판매 비중은 38대 62로 바뀌었다. 올해 사전 판매에서도 가장 비싼 아이폰15 프로 맥스가 가장 먼저 매진됐다.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프리미엄폰 시장의 성장과 보급형 시장 감소를 근거로 애플이 올해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등극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스마트폰 판매대수에서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다.삼성전자는 애플과 초프리미엄 시장에서 전면전을 벌이는 대신 보급형 프리미엄 시장을 파고드는 ‘국지전’을 선택했다. 바형 프리미엄 라인업은 올해 상반기에 출시한 갤럭시 S23 시리즈가 있고, 하반기에 선보인 폴더블폰(Z플립5·Z폴드5)도 새로운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 중이다.S23 FE는 남아 있는 신흥시장을 공략하면 된다. 신흥시장은 보급형에서 프리미엄으로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초고가 모델보단 보급형 프리미엄 수요가 견고하다. 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사양이라도 갤럭시 A와 갤럭시 S는 소비자 입장에서 브랜드 밸류가 다르다. S23 FE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S23 FE를 인도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에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반응에 따라 미국 유럽 등의 다른 지역으로 판매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시장에서 출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S23 FE에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 2200을 탑재할 전망이다. 갤럭시 S22에 사용됐던 AP로 삼성전자가 마지막으로 갤럭시 스마트폰에 쓴 엑시노스다.특히, S22에 사용됐던 엑시노스 2200보다 S23 FE에 탑재된 게 성능·발열 측면에서 개선됐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그 사이 삼성전자 4나노 공정이 수율과 안정성에서 큰폭의 개선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IT매체 샘모바일은 일부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같은 엑시노스 2200을 쓰는 S23 FE 성능이 S2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출시 지역에 따라 스냅드래곤8 1세대를 탑재하는 모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6.4형 풀HD+ 디스플레이, 210g의 무게, 5000만 화소 메인 카메라 등 트리플 카메라, 4500mAh 배터리 등의 사양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전작과 같은 699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에 ‘갑질’, 미국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 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70841?sid=101

[앵커] 삼성전자에 와이파이 등 무선통신 칩을 공급하면서 부당한 장기계약을 강제한 미국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갑질'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91억 원을 물렸습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무선인터넷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미국 브로드컴.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사인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까지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무선통신 관련 부품 90% 이상을 브로드컴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2019년 일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다른 업체에 주문하자 브로드컴의 갑질이 시작됐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괍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경쟁사에도 주문을 넣자 삼성전자에 보낸 메일에서 경쟁사를 '증오스런 경쟁사'라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 의존도가 높은 다른 부품을 지렛대 삼아 삼성전자에 독점, 장기계약을 강제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삼성전자의 주문을 아예 받지 않았고,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계약조건을 수용하지 않자 그해 3월부터 기존 주문의 선적과 삼성전자 관련 생산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스마트기기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몰렸고, 결국, 협상 2개월여 만에 브로드컴이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연간 7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10조 원어치가 넘는 부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브로드컴이 구매주문 승인 중단을 '폭탄투하' 또는 '핵폭탄'에 비유하며 스스로 기업윤리에 반하는 협박이라고 표현한 자료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계약 결과 부품 단가 상승 등으로 삼성전자는 2천억 원이 넘는 추가비용을 감당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191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특징주]삼성전자, 1% 미만 하락…6.9만원 '아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79942?sid=101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장중 1% 미만 하락하면서 6만9000원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300원(0.43%) 하락한 6만9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18일(7만200원) 이후 3거래일째 6만9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간밤 미 증시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Fed)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53%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4% 하락했다. 애플은 아이폰15 사전 구매 수요가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일부 투자회사의 발표로 2% 하락했다. 인텔은 전일에 이어 데이터센터 수요 부진으로 4.54% 급락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데이터센터 관련 대형 기술주의 부진 등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으로 이어져 국내 증시에 부담”이라고 말했다.

드디어…국내 최장수 반도체 ETF들, 삼성전자 담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93457?sid=101

KRX 반도체 지수 정기변경'삼성 없는 반도체 ETF' 지적 벗어  
  
  
  
삼성전자 사옥. 사진=한경DB국내 대표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상장 17년 만에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게 됐다.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에 담게 됐기 때문이다.19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수 정기변경을 통해 자사 국내 반도체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상품 'KODEX 반도체'와 'TIGER 반도체'에 삼성전자를 새롭게 편입하게 됐다. 이들 자산구성내역(PDF)에는 지난 15일부터 본격 반영됐다.KODEX 반도체와 TIGER 반도체는 국내 첫 반도체 ETF다. 2006년 상장한 뒤로 현재까지 순자산이 각각 5100억원, 24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이들 두 ETF는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담은 'KRX 반도체 지수'를 추종한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한국거래소의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 분류에 따라 반도체 섹터가 아닌 IT(정보기술) 섹터로 분류돼 있었다.또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생활가전과 스마트폰 등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도 만든다. 때문에 반도체 매출 비중이 다른 부문 매출 대비 높지 않아 지수에 편입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산업 대표성 등이 추가로 고려돼 이번 지수 정기변경을 통해 새로 편입된 것이다. 삼성전자 없는 국내 반도체 ETF(KODEX·TIGER)가 우리 증시에 상장된 지 17년 만이다.이로써 기존 20% 수준이던 SK하이닉스에 삼성전자 비중까지 합쳐져 국내 반도체 양대 종목의 비중은 40% 수준이 됐다. 두 종목 집중투자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부상으로 장기적인 이익이 전망되고 있다. 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이번 삼성전자의 KODEX 반도체 ETF 편입으로 그동안 투자자들의 요청이 많았던 반도체 대표 종목 편입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며 "HBM 반도체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는 시의적절한 시점에 편입이 돼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제트 AI’ 신제품 출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50470?sid=105

55℃ 이상 고온수 오염물에 직접 분사  
  
  
  
삼성전자 ‘비스포크 제트 AI’ 신제품. [사진 삼성전자][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삼성전자가 약 55℃ 이상의 고온수로 물걸레 청소까지 할 수 있는 무선 스틱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AI’ 신제품을 20일 출시했다.이번 신제품은 기존 제품의 강력한 흡입력과 다양한 편의 기능은 물론, 고온 세척 브러시를 적용해 물걸레 청소 성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약 55℃ 이상의 고온수를 스프레이 형태로 직접 오염물에 분사해 상온수로 제거하기 어려운 찌든 때까지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다. 청소기 본체 우측(+) 버튼을 누르면 고온수가 분사되고, 좌측(-) 버튼을 누르면 일반 물걸레 청소로 전환된다. 고온수의 초기 예열 시간은 약 20초이며, 대용량 배터리 사용 시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브러시 상단의 예열 표시등으로 예열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브러시 전면에 추가된 발광 다이오드(LED) 라이팅으로 어둡고 좁은 곳을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다.이준화 삼성전자 부사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가사 수고를 덜 수 있는 스마트한 제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신제품 출시에 맞춰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소비자 체험단을 모집한다. 상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확인하면 된다.

삼성전자, 익명게시판 '오감톡' 폐지 논란…임금 갈등 탓?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02163?sid=101

국민청원 방식 '오감톡', 이달 예고 없이 운영 중단회사 "대면 소통 늘고, 당초 기획 취지와 달라져""단협 직전 임금 갈등 공론화 우려에 폐쇄" 시각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으로 지난해 4분기 매출 70조원, 영업이익 4조3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8.6% 줄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2023.01.06. mangusta@newsis.com[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삼성전자가 최근 임원과 MZ세대 직원 간 소통 창구로 마련한 사내 익명 게시판 '오감톡'을 2년 만에 예고 없이 폐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삼성 측은 오감톡이 감염병 대유행 기간에 사내 소통 목적으로 마련했는데, 코로나19 종식 이후 대면 행사가 활발해지면서 운영을 종료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노조와 단체 교섭을 앞두고 민감한 내용이 공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게시글 작성을 막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들린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삼성전자는 회사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지난 2021년 초 신설했던 '오감톡'의 운영을 중단했다. 오감톡은 삼성전자가 임원진이 직접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개설한 익명 게시판이다. 직원들이 회사에 답변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한 달 동안 최소 50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경영진이나 담당 임원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지난해 문을 닫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방식이다.신설 당시 오감톡은 직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5000건 이상의 '공감' 클릭을 얻지 못하더라도, 자기주장이 강한 MZ세대 사이에서 사내 불편 사항 해결을 촉구하는 창구로도 활용해왔다.그러나 이달 초 회사 측에서 예고 없이 '오감톡'의 운영을 중단하자 직원들은 갑작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조에서도 인사팀에 게시판 폐쇄 경위를 이유를 묻는 공문을 보내 파악에 나선 상태다. 회사 측은 게시판 운영을 중단한 이유로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대표이상 간담회나 직군별 대면 행사 등으로 소통의 형식을 전환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오감톡을 운영하는 2년여 동안 공감 5000건을 채운 게시글이 4개에 불과해 당초 기획 방향과 달라졌고 실질적인 소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단체교섭 앞두고 폐쇄…임금 체계 불만 의식했나다만 내부에서는 회사 측이 단체 교섭을 앞두고 민감한 내용이 공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게시판을 닫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최근 성과급 차등 지급이나 인사고과 제도 등 임금 체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업부 간 임금·복지 차별 문제가 지속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말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은 대졸 신입사원(CL2) 초임 연봉을 SK하이닉스와 같은 5300만원으로 인상해 다른 사업부의 신입(5150만원)과 임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신입 초임이 부서마다 달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임금 체계에 대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대표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도 최근 회사와 협상에 들어간 '2023년도 삼성전자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서 '불공정·불투명·차별적 임금제도 개선'을 핵심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사업부별 대졸 신입 사원 임금 차이, 임금 역전, 복지 차별 등으로 구성원들이 갈등하고 있다"며 "구성원 내 불합리한 차별은 조직 내의 팀워크를 저해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운드리보다 메모리가 빠르다"…삼성전자 1위 기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00367?sid=101

TSMC, 내년에도 설비투자 축소 전망 커져메모리 업계는 내년 강력한 회복세 전망삼성전자, TSMC 제치고 매출 1위 탈환 기대감  
  
  
  
[서울=뉴시스] 대만 TSMC 반도체 생산라인. 사진 TSMC[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최근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내년에도 설비투자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력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경우 재고 조정을 연내 마치고 업황 반등에 나설 전망이다. 양 진영이 주력하는 시스템반도체 대 메모리반도체의 대결 구도가 내년에는 메모리반도체 우세 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TSMC가 예상보다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설비투자(CAPEX) 규모를 250억~280억달러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316억달러)보다 21%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올 초에도 TSMC의 내년도 설비투자 추정치를 360억달러에서 320억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 눈높이를 이보다 더 낮춘 것이다.TSMC가 주력하는 파운드리 산업은 올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으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TSMC의 올해 1~8월 매출은 1조3557억7700만대만달러로, 반도체 업황 부진 속에서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 감소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절반 이상을 장악한 TSMC마저 공장 가동을 늦추는 '슬로우 다운'에 들어간 상태다. 또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장비 도입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납품 연기를 통보받은 업체 중에는 최첨단 공정 장비를 유일하게 공급하는 네덜란드 ASML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TSMC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실적 발표에서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10% 감소할 것이라는 자체 전망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반도체 수요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메모리, 반등 기대감…삼성전자 세계 1등 탈환 기대감파운드리와 달리 한국 반도체 업계가 주도하는 메모리 시장은 연내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올해 4분기 글로벌 D램 시장이 공급 과잉에서 공급 부족으로 전환되며, 메모리 반도체 일종인 D램 가격이 3분기 대비 17.8%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뉴시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 2022.09.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SEMI도 내년 메모리 팹(공장) 장비 투자가 올해보다 65% 증가한 270억달러로 내다봤다. 이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회복세다. 반면 파운드리 부문 투자는 5% 증가한 515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성장률은 제한적일 전망이다.업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재고 조정을 파운드리보다 먼저 시작한 만큼 업황 반등 시점도 빠를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세계 반도체 업계 매출 1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4~6월) 반도체 사업 매출은 94억5000만달러(약 12조6000억원)에 그쳐, 같은 기간 122억6300만 달러를 기록한 인텔에 밀려 2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 기준 세계 반도체 매출 1위에 올랐으나, 메모리 업황 둔화가 시작된 지난해 3분기 이후 인텔이 역전했다. 이번 통계 집계에서 제외된 TSMC(156억7700만달러)를 포함하면, 삼성전자의 순위는 3위까지 떨어진다.최근에는 AI용 반도체 강자 엔비디아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기세를 높이고 있다. 카운트포인트리서치 집계 기준으로 엔비디아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점유율이 2분기 9%를 차지해, 삼성전자(8%)를 근소한 차이로 앞지른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내년에는 메모리 업황이 강력한 수요 반등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매출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먼저 업황 둔화를 맞았던 만큼, 업황 반전도 먼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반세권’에 집값 훌쩍…3700가구 연내 분양하는 이곳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89011?sid=10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후동탄 분양단지들 1순위 마감산단 15분 거리 은화삼지구3개 블록, 3724가구로 조성산단 배후 주거단지 역할 주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3742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은화삼지구 조감도. [사진 출처=대우건설]올해초 정부가 발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용인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대우 건설이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시 처인구에 3724가구 규모 대단지를 공급한다. 용인시에 들어서는 3번째 규모의 대단지로,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19일 대우건설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 126-13번지에 추진 중인 은화삼지구에서 공공주택 3개 블록을 연내 분양한다고 밝혔다. 은화삼지구는 지구단위구역 내 공동주택 3개블럭(A1, A2, A3)과 기반시설 용지, 근린생활시설로 계획돼있다. 올해 5월 건축심의, 8월 사업승인까지 완료돼 인허가 절차를 모두 끝냈다.은화삼지구는 지하 4층~지상 28층, 30개동, 총 372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준공시 지난 2018년 6월 준공된 E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1~6단지·6725가구), 2024년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힐스테이트몬테로이(1~3단지·3731가구)에 이어 용인에서 3번째로 큰 대단지가 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935대 △59㎡B 540세대 △84㎡A 1,288세대 △84㎡B 725세대 △84㎡C 231세대 △130㎡A 5세대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다.단지가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입지다. 은화삼지구는 정부가 지난 3월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될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해있다. 삼성전자는 2042년까지 300조원 이상을 투자해 처인구 남사·이동읍에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을 5곳 확보할 예정으로, 준공시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된다. 2026년 말 첫 삽을 뜬 뒤 2028년에 준공, 2030년 말 가동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한 번 앞당긴 바 있는데, 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간표가 수개월씩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이유로 동탄 등 인근지역 부동산은 크게 들썩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반도체 산단과 가까운 동탄2신도시 내 단지들 대다수가 연초 저점 대비 1~2억씩 실거래가가 뛰었다. 동탄역롯데캐슬의 경우 102㎡가 지난 달 26일 20억원(41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지난 7월 18억3000만원(31층)에 손바뀜된 지 불과 한달 만에 1억7000만원이 올랐다.청약 경쟁률도 고공행진 중이다. 산단 후보지가 발표된 3월 이후 동탄에서 공급된 동탄 파크릭스 A55블록,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A59블럭·이상 4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A56블럭(2회차·6월) 등 3개 단지는 분양시장 침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산단 후보지 발표 직전 분양이 이뤄진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A56블럭(1회차·3월)이 대다수 타입에서 미달된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다.은화삼지구는 반도체 산단이 있는 지역에서 차로 15분 거리내 들어선다. 반도체 산단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45번 국도로 바로 연결된다. 지구는 이밖에도 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용인 역북, 고림지구 등과 생활권을 공유해 CGV, 이마트 등 생활편의시설 접근이 용이하다. 지구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설립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사업부지 3개 블럭을 연계한 넓은 대지면적을 활용해 리조트급 특급 조경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은화삼지구는 총 3724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향후 도래할 반도체 르네상스 시대의 직간접적인 수혜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뜨거운 물로 찌든 때까지…삼성전자 '비스포크 제트 AI' 청소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61278?sid=101

(삼성전자 제공)(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삼성전자(005930)는 약 55도 이상의 고온수로 물걸레 청소가 가능한 무선 스틱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AI'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온수를 스프레이 형태로 직접 오염물에 분사해 상온수로 제거하기 어려웠던 찌든 때까지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다. 청소기 본체 우측(+) 버튼을 누르면 고온수가 분사되고, 좌측(-) 버튼을 누르면 일반 물걸레 청소로 전환돼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고온 세척 브러시'를 적용해 물걸레 청소 성능을 높였다. 고온수의 초기 예열 시간은 약 20초이며, 대용량 배터리 사용 시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원 "휴대용 빔프로젝터, 배터리 삼성전자 제품 가장 길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61990?sid=101

선호도 높은 7개 제품 시험평과 결과LG전자·제우스프로젝터매니아 3사 제품 표시값 대비 밝기 약해  
  
  
  
휴대용 빔프로젝터 선택 가이드(한국소비자원 제공). 2023.09.20/뉴스1(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용 빔프로젝터 제품의 영상·음향품질, 밝기가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터리 사용시간은 삼성전자가 가장 길었고, LG전자 제품은 표시값보다 밝기가 약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주요 브랜드의 휴대용 빔프로젝터 7개 제품을 시험평가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평가 대상 제품은 △벤큐(GS50) △뷰소닉(M2e) △삼성전자(SP-LSBP3LAXKR) △샤오미(M055MGN) △LG전자(PF50KA) △제우스(ZeusA1000N) △프로젝터매니아(PJM-MINI9) 등이다.명암비, 색정확성, 색재현성, 밝기균일성의 시험결과를 종합해 영상품질을 평가한 결과 벤큐, 삼성전자, 샤오미, LG전자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밝기 시험평가 결과, 샤오미 제품이 388안시루멘으로 가장 밝았고 프로젝터매니아 제품은 152안시루멘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2.6배 차이가 있었다.LG전자, 제우스, 프로젝터매니아 등 3개 제품은 밝기 실측값이 제품 표시값 대비 약 3.2배~6.5배 미달했다.뷰소닉, 삼성전자 제품은 국제기준 단위인 안시루멘으로 밝기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표시개선이 필요했다.원음을 왜곡 없이 재생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음향품질 시험평가 결과 벤큐, 삼성전자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뷰소닉, 샤오미 제품은 '양호' 평가를 받았고 LG전자, 제우스, 프로젝터매니아 등 3개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돼 제품 간 성능 차이가 있었다.외부 전원 공급 없이 배터리를 연결해 사용가능한 시간을 시험평가한 결과 삼성전자 제품이 3시간3분으로 가장 길었다.벤큐, LG전자, 제우스, 프로젝터매니아 등 4개 제품은 기본모드 작동 조건에서 실측 사용시간(약 1시간30분~1시간50분)과 제조사 표시기준인 저전력모드 사용시간(약 2시간 30분~3시간) 간에 차이가 있어 표시개선이 필요했다. 샤오미 제품은 배터리 연결 시 간헐적으로 꺼짐 현상이 발생해 사용시간을 측정할 수 없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휴대용 빔프로젝터는 밝기가 낮은 편이므로 주간이나 실내조명 아래서 사용하기는 어렵다"며 "밝기가 높을수록 주변이 다소 밝아도 비교적 화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야외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배터리 사용시간이 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영화 한 편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충분한 밝기로 최소 2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 카드 어디 있지?"…삼성전자, 위치 확인 가능한 'IoT카드' 선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774031?sid=101

KB국민카드·아멕스와 협력…'스마트싱스 파인드' 플랫폼 기반 서비스 제공삼성전자가 '스마트싱스 파인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용카드 위치 확인이 가능한 'IoT카드'를 선보인다.  
  
  
  
삼성 '스마트싱스 파인드' 플랫폼 기반 사물인터넷(IoT)카드 예시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는 KB국민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아멕스)와 '사물인터넷(IoT) 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3사는 이번 MOU를 통해 삼성 '스마트싱스 파인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 위치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스마트싱스 파인드'는 '저전력 블루투스(BLE)' 기술을 활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로,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웨어러블 등 다양한 종류의 삼성 기기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신용카드에 '스마트싱스 파인드'를 적용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국내외에서 IoT카드 위치 확인 △스마트폰과 IoT카드가 멀어질 경우 알림 △IoT카드와 연결된 스마트폰 찾기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이를 통해 해외 여행을 가서 실수로 지갑을 분실한 경우 갤럭시 스마트폰의 '스마트싱스 파인드' 서비스를 통해 IoT카드 또는 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이번 협력을 통해 삼성전자는 IoT카드와 스마트싱스 파인드 연동을 위한 기술을 제공하고, KB국민카드와 아멕스는 IoT카드 개발, 발급 및 결제 시스템을 담당할 예정이다.박찬우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삼성 갤럭시 기기뿐 아니라 신용카드와 같은 다양한 파트너사 제품의 위치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스마트싱스 파인드 플랫폼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더 높은 만족과 가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